

조선대, 달빛동맹 청년 챌린지 성료

광주·대구 5개 대학 학생 40명 참여 창의적 비즈니스모델 개발 상호협력

제1회 달빛동맹 청년 이노베이터 챌린지가 최근 대구 동성로와 대구 도심캠퍼스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상생 협력의 상징인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두 지역 대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광주와 대구의 산업적 강점을 살린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계명대 주최로 열린 이번 챌린지에는 조선대, 계명대, 대구보건대, 전남대, 조선이공대 등 총 5개 대학에서 선발된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적 특성을 결합한 상생의 창업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대구광역시장은 "한방과 예술의 만남" 광주×대구 한방 DIY 키트"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이 차지하며 달빛상생이노베이터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아이디어는 조선대, 계명대, 대구보건대, 전남대, 조선이공대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광주와 대구의 특성을 살려 개발한 상생 비즈니스 창업 아이디어이다.

"달빛 요리사", "달빛동맹 비즈니스 플랜", "자전



제1회 달빛동맹 청년 이노베이터 챌린지 참가자들이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거 대어 플랫폼 벨라타소' 등 두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다. 행사 이후 참가자들은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시 대학페스타에 참가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5개 대학은 향후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

고, 내년 5월에는 광주에서, 11월에는 대구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호중 조선대 창업지원단 부단장은 "이번 창업 캠프를 통해 다채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발굴됐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창의적 구상이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청, '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국가시책 추진 실적 정량평가 18개 지표 ALL PASS 달성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시책의 추진 실적 정량평가에서 18개 지표 기준을 모두 통과(ALL PASS)해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국가시책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는 주요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반영해 5개 분야 20개 지표

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시도교육청 행태정 운영 효율화 등을 평가했다.

20개 지표 중 시범지표 2개를 제외한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하는데 18개 지표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에는 광주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광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교육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환경을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꾸며 더 멀리, 더 깊게, 더 넓게 성장할 수 있는 광주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교육현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등급과 순위를 공개하고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평가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평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도교육청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장애 학생 'AI 교수학습법' 지원

초등 특수교사 100명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전남교육청이 장애 학생들의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수학습법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일 나주 웨스턴호텔에서 지역 특수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초등 특수교사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우선 도입됨에 따라 특수교육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특수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 수업 방식과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핵심 내용, AI 디지털교과서 표준 등 이론·실습을 병행한 7차시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여승현 교수(대구교육대)의 'AI 디지털교과서 수업 방식과 교사의 역할 변화'와 정웅 교사(함평영화학교)의 '특수교육에서의 AI 코스웨어 활용 사례', 박천일 교사(영암교육지원

청) 'AI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솔루션 활용 방법' 등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특수교육에 AI 기술이 접목될 때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실감했다"며 "교실에서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에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장애 학생은 서책형 교과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AI 기반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동강대, 최신 트렌드 배우고 재능기부 활동

K뷰티아트과, 뷰티아카데미 참여 체험부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K뷰티아트과가 최신 뷰티 트렌드를 배우고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동강대 K뷰티아트과 (학과장 정선주)는 지난 7월부터 '2024 광주뷰티아카데미(뷰티인재양성원 스톱과정)' 뷰티트렌드 인사이트 과정에 참여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동강대와 국제직업전문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뷰티트렌드 인사이트'는 뷰티산업의 DX(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취·창업 일자리 사업으로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한다.

이와 관련 동강대 K뷰티아트과는 7월 교내 보건관 오후홀에서 뷰티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K뷰티아트과 학생들은 AI(인공지능) 추천 맞춤형 메이크업과 뷰티트렌드 헤어스타일링 등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또 올 9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끝난 '메디뷰티산업전'에서도 최신 헤어스타일링과 모델 시연 교육을 받았다.

K뷰티아트과 학생들은 교육 후에는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네일 ▲파리핀 ▲피부 및 모발 측정 ▲헤어 등 평소 갖고 싶은 재능을 맘껏 뽐냈다.

이와 함께 동강대 K뷰티아트과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K뷰티아트과 장영혜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들은 강의가 없을 때 지역의 요양원과 복지관, 종교 행사장 등을 찾아 커트나 네일 등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호남동성당에서 열린 2024년 노숙인돌봄사업 '아름다운 동행 한가위 나눔잔치'에서 노숙인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하기도 했다.

정선주 학과장은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쌓은 실력을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검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갈수록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 송원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안민희) 학생 126명이 최근 송원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다. 고경주 이사장과 최수태 총장, 교수들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다. <송원대 제공>

동신대, 특성화고 대상 실무인재 양성과정 인기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기업체 실무 인재 양성과정 2기, 3기'를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역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기수를 나눠 맞춤형으로 펼쳐졌다. 2기는 지난 7월부터 11월, 3기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학생들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NCS)과 이미지 메이킹, 면접 등 맞춤형 특강, 진로 취업 상담, 취

업 연계서비스 등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학생들의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한전 KPS 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해 세부적인 기업 정보를 얻고,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 부여가 되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안민주 센터장은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한 청년 취업을 제고와 지역산업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